

에너지 JOB 박람회...산업 인재·일자리 잇는다

나주, 5개 테마관 운영...직무멘토링·취업컨설팅 지원
59건 연구성과 전시...채용설명회·커리어 특강도 진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채용과 진로 탐색, 미래에너지 체험까지 아우르는 전문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에너지산업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잇는 지역 인재 생태계 강화에 나섰다.

5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2026 대한민국 에너지 전문 JOB 박람회'를 개최하고 에너지 산업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한편 기업과 청년·구직자 간 실질적인 취업 연계의 장을 마련했다.

'에너지와 함께, 미래를 JOB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에너지산업 분야 기업과 청년·구직자를 연결해 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녹색에너지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며 에너지산업과 일자리, 인재 양성을

연계하는 지역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박람회장은 참가자들이 에너지산업의 미래부터 진로 탐색과 실제 취업 준비까지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미래에너지관, 에너지체험관, 미래인재관, 에너지커리어관, 에너지채용관까지 5개 테마관으로 구성됐다.

현장에서는 에너지 관련 기술과 연구 논문 59건을 전시해 연구성과와 산업 동향을 공유했으며 직무 멘토링과 적성진단, 면접·입사서류 컨설팅, 경력 컨설팅, 이미지메이킹 등 구직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에너지산업과 취업의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강연과 채용설명회도 이어졌다. 공학박사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과학식 교수는 '에너지산업에서 미래를 찾아'를 주제로 미래 에너지산업의 변화와 가능성을 소개했다.

한전KDN, ㈜티아에프는 기업과 직



나주시는 최근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2026 대한민국 에너지 전문 JOB 박람회'를 개최한 가운데 에너지 기업과 청년·구직자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무, 채용과정을 소개하는 채용 설명회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 한전 KPS는 멘토링을 진행했다.

'유 퀴즈 온 더 블럭' 등 방송에 출연하

며 '취업의 신'으로 알려진 황인 강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꿈과 도전, 취업과 사회 진출을 주제로 커리어 특강을 펼쳤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대전환으로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할수록 미래 산업을 이끌 전문 인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가 기업에는 필요한 인재를 만나

고 청년과 구직자에게는 새로운 진로와 일자리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환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대한적십자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혈액원은 최근 혈액원 본원에서 지역 헌혈 참여 우수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표창 전달식을 개최했다.

미래 간호사들, 헌혈로 '생명나눔' 앞장

대한적십자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혈액원은 최근 혈액원 본원과 청암대학교에서 지역 헌혈 참여 우수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표창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광주지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헌혈 참여 캠페인 '간호봉사 대장정'과 순천·여수지역 간호대학생 대상 '하트투너스 간호원정대' 캠페인의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혈액원에서 열린

'간호봉사 대장정' 표창 수여식은 박진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혈액원장과 지혜련 광주광역시 간호사회장, 대학생 등이 참석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재학생 정원 대비 헌혈 참여율과 전년도 대비 참여 증가율을 기준으로 전남대학교 간호학과와 조선간호대학교 간호학과가 우수대학으로 선정돼 혈액원장 표창패를 받았다. 캠페인에 참여한 각 대학 학생들에게도 혈액원장 표창장이 수여됐다.

헌혈 참여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된 전남대 간호학과와 조선간호대 간호학과에는

각각 20만원 상당의 간식도 제공될 예정이다.

순천·여수 등 동부권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된 '하트투너스 간호원정대' 표창 수여식은 청암대학교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김성홍 청암대학교 총장 직무대행과 동부권 간호대학 학과장 및 교수진, 학생 등이 참석했다.

동부권 캠페인에서는 헌혈 참여율이 가장 높은 청암대학교와 순천제일대학교가 우수대학으로 선정돼 표창패를 받았다.

지혜련 광주시 간호사회장은 "간호대 학생들이 미래의 간호사로서 생명의 소중

함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헌혈이라는 실천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직접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간호대학생들이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혈액원장은 "간호대학생들이 예비 의료인으로서 헌혈을 통해 생명나눔을 직접 실천하는 데 앞장서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간호대학생들과 함께 안정적인 혈액 수급과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특별시 동구 지원2동, 나눔 활동

돌봄이웃 반찬 전달...불편사항 확인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원2동이 주민들과 함께 직접 키운 제철 농산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5일 동구에 따르면 지원2동은 최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용연마을 '벗바리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무를 수확했다.

수확한 무는 향후 김치 등 반찬으로 만들어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상 가구의 안부와 생활 불편사항도 함께 살피는 등 이웃 돌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지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016년부터 벗바리농장에서 계절에 맞는 농산물을 재배하고 이를 활용한 반찬을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나눔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위원들이 농산물 파종과 재배, 수

확은 물론 음식 조리와 전달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어 이웃 간 정을 나누는 지원2동의 대표적인 복지 특화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김재원 지원2동 지사협 위원장은 "위원



들이 직접 씨를 뿌리고 정성껏 가꾼 농산물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벗바리농장을 통해 계절마다 건강한 먹거리를 나누고 이웃의 안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임호진 지원2동장은 "파종부터 수확까지 정성을 다해 참여해 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정성껏 키운 농산물로 만든 반찬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이웃을 살피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31사단 사자여단 장병들, 교통사고 현장에서 시민 구조



육군 제31보병사단 사자여단 장병들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응급조치로 부상자를 구조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교통 통제·응급조치...나주소방, 문현준 면대장 표창

육군 제31보병사단 사자여단 장병들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응급조치로 부상자를 구조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5일 사자여단에 따르면 함평월야통합면대장 문현준 사무관과 나원준·박이언 상병, 노원대 일병 등 4명은 지난달 21일 대대 전술훈련평가를 위해 이동하던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노안면의 한 교차로에서 덤프트럭과 승용차가 충돌한 사고를 목격했다.

이들은 곧바로 현장에 나서 대응에 나섰다. 문 사무관과 박 상병은 교차로 통행 차량을 통제해 2차 사고를 예방했고, 나 상병은 119와 경찰에 신고해 출동을 요청

했다. 노 일병은 크게 다친 승용차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조치를 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대원에 게 사고 상황과 부상자 상태를 전달한 뒤 훈련 임무를 이어갔다.

나주소방은 장병들의 신속한 대응이 인명 구조와 추가 사고 예방에 기여했다고 보고, 문 사무관에게 소방서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문현준 면대장은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든 주저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전남농협, 광주대와 영암 고구마 수확 돕기

고향주부모임·대학생·농협 임직원 등 100여명 참여

농협전남본부는 최근 영암군 신북면 일원에서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구마 농가를 찾아 수확 작업을 지원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농협전남본부와 영암군지부, 신북농협 임직원을 비롯해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고향주부모임 전남도지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고구마 수확 작업에 힘을 보태며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도왔다.

고향주부모임 전남도지회는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덜고 농업인과 봉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심점심(以心

點心) 중식지원사업'도 함께 진행했다. 회원들이 준비한 점심 식사는 수확 작업에 참여한 농업인과 봉사자들에게 제공됐다.

이광일 농협전남본부장은 "학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일손돕기에 참여한 광주대 간호학과 학생들과 따뜻한 정성을 마련해 준 고향주부모임 전남도지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10월부터 본격적인 수확철이 시작돼 일손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가을 인력을 총동원해 농촌 일손돕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